



제13대 최상백 회장 취임식 전경

## 본회, 제13대 최상백 회장 취임식 개최

- 본회 전·현직 임원 및 축산관련단체장 등 내빈 200여명 참석

**본회**는 지난 5월 6일 12시에 대전 신협연수원에서 제 13대 회장으로 선출된 최상백 회장 취임식을 거행했다.

본회는 그간 회장 선출 직후 취임식을 거행할 계획이었으나 IMF한파 등으로 인한 경비절감과 취임식을 계기로 양돈업계의 화합과 단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이날 취임식을 거행하고, 계속해서 임직원 연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취임식에는 박재근 제2대 회장(현 고문)을 비롯, 본회 전·현직 임원·지부장 등과 축산관련 기관·단체장, 양돈축협조합장, 축협조합장 등 내빈 200여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최상백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돼지고기 전면 수입개방과 외환위기 등으로 양돈산업이 가장 어려울 때 제13대 대한양돈협회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중차대한 사

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최회장은 "재임기간동안에 전 양돈인들의 숙원 사항인 무임승차자 없는 자조금 제도의 법제화를 위해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최회장은 이외에도 "돼지분뇨처리시설 자금의 보조 확대와 축산정책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자가배합사료 생산과 이용의



▲본회 전제명 부회장이 최상백 회장의 경력을 소개하고 있다.



▲본회 김건태 부회장이 취임식에 참석한 내빈을 소개하고 있다.



확대, 종돈검정업무와 등록업무의 일원화, 돼지고기 수출증대를 중점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취임식에서 박재근 본회 제2대 회장과 김남용 낙농육우협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전재명 부회장이 최상백회장의 경력을, 김건태 부회장이 내빈을 각각 소개했다. 박재근 전회장은 축사를 통해 "이렇게 어려운데 최상백 회장이 아주 큰 중차대한 업무를 맡아 우리나라 양돈산업의 발전을 위해 크게 일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하고, "우리 양돈인들도 새 회장을 중심으로 굳게 뭉쳐 자조금제도 등 산재한 많은 일들을 함께 풀어가자"고 제의했다. 또한 김남용 낙농육우협회 회장도 축사를 통해 "양돈협회가 새로 선출된 최상백 회장을 중심으로 굳게 단결하여 이 어려

운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것"이라고 격려했다.

한편 최상백회장은 취임사에 앞서 재임기간 동안에 공이 큰 엄원섭, 하오조, 김위진 전 이사 등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養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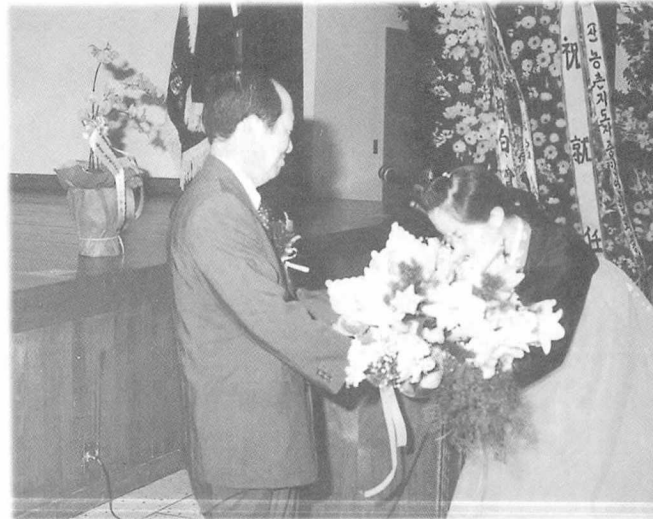
왼쪽/최상백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전국 양돈농가의 화합과 자조금제도의 법제화를 위해 재임기간 동안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오른쪽/본회 제2대 회장이며, 현 고문인 박재근 전 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가운데/낙농육우협회 김남용 회장도 축사를 통해 최상백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최상백 회장(우)이 취임사에 앞서 재임기간 동안에 공이 큰 엄원섭(좌측부터), 김위진, 하오조 전 이사 등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있다.



▲최상백 회장이 본회 직원으로부터 꽃다발을 증정받고 있다.